



Market Index / 13일

코스피지수 ▼ 2232.96 -5.42	코스닥지수 ▲ 687.61 +1.02	유가(WTI, 달러) ▲ 51.17 +1.23	감골 평균경락가(5kg, 원) = 8,000 0	환율(원) 1USD 1202.27 100¥ 1095.12	팔매 1160.93 1057.46	살매 1312.00 177.67	팔매 1260.82 160.75
--------------------------	-------------------------	------------------------------	-------------------------------	------------------------------------	-----------------------	----------------------	----------------------

# ‘코로나19’ 여파 제주경제 격랑속으로...

## 작년 기상악화로 타격받은 밭작물·감귤산업 악재 관광객 급감 숙박·식당이 울상... “자립 의지 중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제주경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 지난해 악기상까지 겹치면서 제주주 주축산업인 1차 산업은 물론 관광산업이 크게 위협받는데 이어 이번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제주도 전역이 비상사태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13일 ‘범도민 위기 극복 협의체’를 출범, 직격탄을 받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나선 가운데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자립 의지가 요구된다.

▶ 날씨·코로나... 잇단 악재에 힘겨운 1차산업=지난해 저온현상을 시작으로 가을장마, 그리고 잇따라 제주를 강타한 태풍으로 당근, 무,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등 제주 밭작물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가을장마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도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아직도 생산·유통농가의 애물단지로 남았다. 지금 한창 레드향·천혜향·한라봉 등 제주산 만감류가 본격 출하되면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줘야 하지만 사과와 배, 딸기 등 다른 작물과의 경쟁구도도 버거운 실정이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이 앞으로 한달간 5억2000만원을 투입해 5200t가량을 소비할 목표로 특별판매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좋은 가격을 유지했던 채소값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 부진과 맞물려 연일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산 월동무를 비롯해 상추와 깻잎 등 쌈채소의 가격 하락은

지난해의 악몽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맞닥뜨리며 눈물겹다. 지난해 말 2만9200원(20kg 기준)을 유지하던 월동무의 가격은 최근 1만1000원대까지 하락했다. 당근도 지난해 4만7000원에서 최근 3만3400원대에 가격이 형성되며 농가의 시름이 깊다.

▶ 소비침체에 돼지고기 가격 하락 식당도 울상=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쿠팡은 날씨가 소비가 줄었고 이번엔 코로나19로 외식이 거의 사라지면서 가격 내림세가 심상찮다. 삼겹살의 평균 도매가격이 kg당 2000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13일 한돈협회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해 목살과 삼겹살을 100g당 990원에 판매하는 특판행사를 시작했다.

제주시 이도지구에서 흑돼지 전문 식당 대표인 A씨는 “100석이 넘는

규모 있는 식당인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1~2테이블을 받는 게 전부”라며 “식당 직원 대부분은 집에서 쉬고 있고, 찾아 오는 손님들이 고마워 소고기 육회를 서비스로 내놓고 있지만 손해는 여전히 크고,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육가공업체 대표 B씨는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이 평소의 20% 수준”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백배 주문은 물론 식당에서의 소비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 내·외국인 관광객 급감 ‘직격탄’ 맞은 제주=제주관광도 이번 사태로 위기에 내몰렸다. 특히 무사증 입국 제도가 일시 중단되면서 전체 60%대를 차지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면세점은 물론 지역내 식당, 화장품가게 등 관련 업체들이 울상이다. 숙박업소 예약 취소는 40~90%에 이르렀다. 때문에 호텔가에서는 현재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오는 3~4월 예약됐던 제주행 수학여행도 모두 예약 취소하

는 사태가 발생하며 제주관광의 회생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2000~3000원대 국내선 항공권을 비롯해 2000원대 렌터카 요금도 나오고 있다. 항공업체는 경영진 임금 일부 반납은 물론 무급휴가 전직원 확대 등 자구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렌터카 수요도 지난해에 견줘 15~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급기야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보도자료를 내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합의 홍중환 실장은 “12일부터 자체 방역소독에 나서는 등 제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유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립 의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현대캐피탈 등 국내 16개사가 렌터카 업체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대 6개월간 할부유예를 하는 등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백금택기자 haru@ihalla.com



‘코로나19’ 사태에 제주 렌터카 업체 ‘비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영향으로 제주도 내 렌터카 운용률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13일 오전 제주시 용담2동의 한 렌터카 업체 주차장이 배차되지 않은 차들로 가득하다.

## 서귀포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대정읍 최고

서귀포시 읍면동에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정읍으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도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4.89%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4.44% 올랐고, 제주시가 4.06% 올라 서귀포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동에서는 도순동이 8.3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하

애동 6.87%, 상호동 6.30% 순이다. 읍면에서는 대정읍이 10.53% 올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안덕면 6.15%, 남원읍 5.77%, 성산읍 4.60%, 안덕면 6.15%, 표선면 4.98% 순으로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7.37%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주거지역 5.59%, 공업지역 4.91%, 상업지역

4.09%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주요 상승 요인으로 실거래가 현실화를 반영이라는 정부정책 기조와 대정읍 지역의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그동안 저평가된 지역에 대한 상승폭 조정 영향으로 분석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제주소상공인센터 전문가 인력풀 구축

### 각 분야 전문가 170명 구성 경영 전반·전문적 내용 지원

제주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최근(1월15~31일) 모집을 통해 총 170여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 전문가 인력풀은 도내 여러 업종의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지도사, 창업보육매니저, 사업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센터와 함께 경영의 전반적인 내용(마케팅, 경영진단, 고객서비스, 점포운영, 사업정리)을 비롯해 법률, 세무, 노무, 특허 등의 전문적인 분야의 자문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전문가 인력풀로 등록된 컨설턴트는 현재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개의 사업과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 마련을 위한 2개의 사업 등 모두 4가지 사업을 수행한다.

경쟁력 강화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진단 및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 컨설팅’과 점포 환경개선과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다. 재기 기회 마련을 위한 사업은 사업정리 시 소상공인의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사업정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정리 사업’과 사업 실패 후 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장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희망더하기 재기지원 사업’이 있다.

컨설턴트는 앞으로 1년 동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의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올해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재기 지원, 창업 및 경영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64-758-5710)로 문의하면 된다.

백금택기자

## 동부건설 ‘동홍동 센트레빌’ 분양

59~84㎡ 중 소형 212세대

동부건설이 서귀포시 동홍동 1368번지 일원에 ‘동홍동 센트레빌’을 분양한다.

동홍동 센트레빌은 지상 최고 8층, 7개동에 212세대 규모로 건설된다. 전용면적 기준 ▷59㎡ 54세대 ▷78㎡ 23세대 ▷84㎡A 104세대 ▷84㎡B 31세대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서귀포시 내 중심생활권역에 들어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면서 중문관광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공항 등 제주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 초중고와 매일올레시장이, 오일장, 대형 유통매장, 서귀포의료원,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위치라고 동부건설측은 밝히고 있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설계도 선보인다. ‘스마트 클린 센트리 시스템’에 제습기능을 추가



동홍동 센트레빌 조감도.

해 미세먼지와 습기를 차단, 입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환기와 통풍에 최적화된 구조를 선보인다. 3베이, 4베이, ㄷ자 주방 등 최신식 설계와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를 위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욕실 캐어존과 펜트리 복도장, 워크인 드레스룸, 알파룸도 제공한다(타입별 상이). 또 단지내 석가산 조경시설과 6개 테마정원, 육상공원, GX룸, 피트니스센터,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시설과 독서실, 코인세탁실도 조성된다.

건본주택은 서귀포시 동홍동 1580-5번지에 있다.

###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양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양신협 2층)

☎ 756-2833